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3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8일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광주·전남 지방선거 '무소속 돌풍' 부나

민주당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들 잇따라 무소속 출마 입장 굳혀
목포·장성·무안·장흥·고흥 등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 입장을 굳히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간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공천 심사 기간 중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다, 경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어 자칫 민주당 심판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1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산 무안군수가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그는 지난 12일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것으로 발표되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군수의 공천 배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거캠프 인사들의 성비위 연루 의혹과 재임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군수는 재심을 신청하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인사들이 경쟁 후보의 성비위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군수 재임시절 차명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컷오프'됐었다.

유 군수는 그러나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과 민주당 공천 심사를 지켜보면서 무소속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 공천 배제 사유도 공무원 주택의 지붕색 변경 강요 논란, 4년 전 여성 성추행 의혹 등이 거론되지만 법원과 경찰에서 무죄와 무혐의 등으로 마무리된 사안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캠프측 입장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도 기자회견 뒤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또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현직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에 따라 무소속 출마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 목포의 경우 관련 고소·고발 건이 4건에 이르고, 나주·강진·함평·신안 단체장 등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컷오프 여부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직 군수가 무소속인 장흥·고흥군수 선거는 일찌감치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 간 접전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조직의 거센 도전이 있더라도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장흥의 경우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전남도당의 경선 방법에 반발해 잡음이 일고 있어 이 중 일부가 무소속으로 거취를 결정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흥·고흥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의 지역구인 만큼 이들 지역 탈환을 위해 공천 룰 변경까지 강행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

고만고만한 무소속 후보들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강세를 보였던 광양 지역도 현직 무소속 시장의 불출마에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단체장들은 그동안 쌓아온 조직력과 인지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곡성도 무소속 출신 도의원이 군수 도전에 나서 민주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지방선거 결과, 전남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무소속 돌풍이 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컷오프된 단체장들과 무소속 단체장들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순 생태공원 '철쭉의 향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휴일을 맞아 화순군 동구리 생태공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철쭉의 향연을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굿바이 코로나"… 일상으로의 초대

사회적 거리두기 757일만에
오늘부터 전면 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만인 18일 전면 해제돼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했다.

정부는 '10명·밤 12시'로 규정돼 있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이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100만 명 가량의 확진자와 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2·7·9·17면〉

팬데믹을 넘어 점차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리두기 방역체제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개념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포차나 국밥집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연이나 야구장 함성도 일상이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와 접촉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은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발표한 지난 15일 밤부터 광주지역 식당가와 유흥가, 카페 등은 일상 회복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주말과 휴일 심야시간대는 물론 오후 시간대에도 인파가 몰렸으며, 전남지역 명소에는 지역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 봄기운을 만끽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 등 동시유행을 비롯해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하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사 청문회 정국 민주당 '野심만만'

지방선거 앞두고 '강대강' 대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서 지방선거 앞둔 정국은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40년 지기'이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리고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 의석을 최대한 활용해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능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철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민주당이 협조를 당부하던 것과 정반대 처지에 놓인 것으로,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인해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내주 초까지 18개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제출을 완료할 계획으로,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 진용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실시되며 내주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청문 일정 협상에 들어가면 신경전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100일 ▶6면
뒷심 강해진 호랑이, NC에 위닝 시리즈 ▶18면
세계의 문화도시 -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22면

제70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김동환·민현기·천홍희
光州日報社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딜러십 Grand Open!

신차, 인증중고차 전시장 그리고 서비스센터까지
One Stop 고객 만족 서비스!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